

동성애자 해방운동과 마르크스주의

Gay Liberation & the Struggle for Socialism

by Noel Halifax

Bookmarks: London, Chicago and Melbourne, 1988

인권 자료실
등록일
9

"앞으로 자본주의 생산이 전복된 뒤 남녀관계가 어떤 식으로 형성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부정적 성격을 갖는 측면, 즉 대체로 사라지게 될 측면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새롭게 등장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새로운 세대, 즉 돈이나 다른 어떤 권력수단으로 여성을 굴복시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평생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남성 세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 애인을 버리거나 진정한 사랑이 아닌 다른 조건 때문에 자신을 남자에게 바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 세대에 이르면 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오늘날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일들에 조금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그들은 독자적인 행동을 하고,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여론을 직접 조성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사회주의의 목적일 것이다."

엔겔스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중에서

차 례

머리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성억압의 뿌리를 찾아서

마르크스주의 전통

독일: 1918-1933년

한낮의 암흑-히틀러의 스탈린의 등장

스톤월 폭동의 동성애자 해방운동의 상승

1980년대

우리가 나아갈 길

머리말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지난 이십 년 동안 동성애자 해방 운동이 쟁취한 성과들이 공격당하고 있다. 보수당의 지방정부법 제 28조는 지방의회가 '동성애를 조장'할 수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내놓고 동성애를 하거나 사람들이 동성애를 인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남녀 동성애자들을 다시 골방으로 몰아넣으려는 의도이다. 보수당은 편견에 반대하고 차별에 맞서려는 시도는 무엇이든 가로막으려 하고 있다.

이런 편견과 차별은 사회 속에 아주 깊숙이 스며 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공격이 늘어나고 있으며 보수당의 세법안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지방정부법 제 28조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공격'을 부추기고, 그것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행동인 것인 양 생각하도록 만들 것이다. 또한 제 28조는 법적으로 동성애자를 천민으로 간주하고 있다.

언론이 에이즈 문제를 다루며 남녀 동성애자들에 대한 대중적인 반발을 부추기면서 이러한 공격이 자행되었다. 반발이 더욱 심해지자, 노동당은 동성애자의 권리를 지지하던 입장에서 자꾸 후퇴해 왔다. 노동당을 신뢰했던 동성애자 해방운동의 다수는 자신들의 희망이 꺾여 버렸음을 깨달았다. 그렇지만 남녀 동성애자들이 골방으로 순순히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지방정부법 제 28조에 반대하는 의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언제라도 투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이며, 또한 많은 수의 이성애자들도 동성애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성애자 해방운동은 운동을 지배하는 관념들, 즉 분리주의와 대연합을 통해 언론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 자신의 역사를 알아야 하고, 과거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1840년대부터 사회주의 운동과 동성애자에 대한 억압에 반대하는 투쟁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그러나 1930년대 스탈린주의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관계는 깨지고 말았다. 1960년대 후반에 대중 투쟁이 되살아나고 나서야 비로소 매장되어 있던 성 해방을 위한 투쟁의 전통이 되살아났다. 동성애자 억압이 자본주의 생산의 조직 방식에서 비롯했음을 밝히며,

동성애자 해방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동성애자에 대한 억압에 맞서 싸우려면 무엇 때문에 동성애자가 억압당하는지 밝혀야 한다. 투쟁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간다. 이 책에서 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억압이 아예 없는 사회를 만들려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보여주는 것이다. 바로 이게 동성애자 해방이라는 구호를 실현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없이는 동성애자 해방이 있을 수 없으며, 동성애자 해방 없이는 사회주의도 있을 수 없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동성애자 해방에 찬성하는 사람은 누구나 동성애가 인간 본성에 어긋난다는 케케묵은 얘기와 맞닥뜨리게 된다. 인간의 유전자 구조와 본능이 정적인 인간 본성을 결정한다는 믿음은 동성애자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통속적인 신화이다.

첫 번째로 다루어야 할 문제는 남녀 동성애자들이 ‘별종들’, ‘성도착들’ 또는 ‘변태성욕자들’이라는 관념이다. 여러 사회들을 대충만 훑어봐도 소위 ‘정상적인’ 것에 수많은 변종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性愛는 생물학적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문제이다. 그리고 그 정의는 역사가 흐르는 동안 크게 변화해 왔다.

많은 사회에서 동성애는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고대 그리스가 가장 유명한 예이다. 그리스 문학과 예술은 남성들간의 사랑을 이상적인 것으로 그렸다. 그리스 신화와 전설들은 남자와 남자의 사랑, 여자와 여자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차 있다. 예를 들어, 아도니스와 나르시소스의 이야기는 미남 청년들과 성관계를 맺고 싶어 안달해 그들을 쫓아다니는 만성 神을 보여준다. 아도니스 숭배교는 그런 동성애 관계를 장려하고 찬양하기 위해 신전을 짓고 축제를 벌였다. 그리스 사회에서 남성이 젊은 남성과 사랑에 빠져 성관계를 갖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 사회가 억압이 없는 실낙원이었다고 믿으면 곤란하다. 그리스 사회는 노예제에 바탕을 둔 사회였으며, 주민들 대다수가 자유시민의 소유물인 노예들이었다. 노예들에게 권리란 있을 턱이 없었고, 그들은 여러 용도에 쓰이는 여러 품종의 개들처럼 키워졌다. 농장 일에 적합한 튼튼한 노예들과 가사일에 적합한 소극적인 노예들이라는 식으로 말이다.

게다가 여성들의 지위가 매우 낮아서 남성들은 여성과 평등한 성관계를 갖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그저 애를 낳기 위한 것이고, 사랑은 소년들과 나눈다는 식이었으니, 소름 끼칠 만큼 억압적인 사회였다.

그리스의 도시국가 스파르타에서는 심지어 청년들과 남성들의 사랑을 발판으로 삼아 군대를 육성하기조차 했다.

스파르타 군대에서는 전사가 청년에게 오랫동안 힘든 도제살이를 시켜 전쟁기술을 가르치곤 했다. 전사와 훈련 받은 청년의 관계는 밀접하고 절대적이었으며, 이것을 중심으로 스파르타 군대의 작전을 세울 만큼 그 결속 관계를 중요했다.

봉건시대 일본의 특권 무사계급이었던 사무라이도 스파르타 전사들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동성애에 대한 당시의 시와 설화들이 그것을 반영해 준다.

이와 같이 동성애는 조금도 ‘비정상적’일 게 없다. 동성애는 거의 모든 사회에서 발견되며, 심지어 동성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회에서도 발견된다. 동성간의 사랑은 인간 성관계의 일반적인 모습으로도 보이곤 했다. 오히려 해명해야 할 것은 왜 일부 사회에서 동성애를 억압하는가 하는 것이다.

공상적 사회주의자들

18세기말엽부터 19세기 전반에 영국에서는 공상적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영국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운동이 있었다. 이 운동은 영국 최초의 노동계급 운동인 차티스트 운동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으며, 차티스트 운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성억압을 자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중심적인 정치적 문제로 여겼다. 특히 그들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성을 지배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성해방을 단호히 주장했지만 성억압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들은 성억압이 주로 無知에서 비롯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사람들의 머리 속은 교회가 심어 놓은 그릇된 관념으로 가득차 있으며 따라서 성억압에 맞선 싸움은 잘못된 관념에 맞선 싸움이라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상호보완적이면서도 똑같이 그릇된 두 전략을 갖게 되었다. 첫 번째 전략은 계몽된 자본가들에게 자신들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었다. 자신들의 견해가 理性에 확고하게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논쟁만으로 영향력 있는 자본가들을 자신들 편으로 충분히 끌어들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당연하게도 거기에 응하는 자본가는 거의 없었다.

다른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행동을 통한 선전’, 다시

미래에 관한 생각

말해서 미래사회에 대한 像대로 현재의 삶을 꾸려 가는 것이 진보적인 길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꼬핀을 세우고, 일부일처제가 아닌 다른 생활방식을 실험해 보려 했다. 이런 실험은 대개 실패했다. 게다가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가족이 아닌 다른 대안을 제안하려던 시도는 크나큰 실패로 돌아갔다.

성역압에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대부분이 겪고 있는 물질적 제약이다. 이런 제약은 단순히 없어지길 바라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의 삶은 물질적 제약 속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 제약을 없애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이 제약은 단순히 없어지길 바라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제약은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우리는 이 제약을 없애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이 제약은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우리는 이 제약을 없애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성역압의 뿌리를 찾아서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 성역압에 대한 개인적인 해결책이 없을까 하고 흥미 있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정작 왜 성역압이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것은 설명하지 못했다. 1884년 엥겔스가 『가족, 사유재산 그리고 국가의 기원』을 쓰고 나서야 비로소 성역압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이 나온 후에야 비로소 성역압을 어떻게 끝장낼 것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엥겔스는 가족이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를 결정짓고 구조화하는 사회의 핵심단위이며, 여성 억압과 성차별주의의 토대임을 깨달았다.

그는 여러 유형의 계급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들을 추적하여 가족이 한 사회에서 그 다음 사회로 넘어갈 때 근본적으로 변해 왔음을 밝혀 냈다. 일부일처제는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본능이 아니라, 사회가 조직되는 방식의 산물이었다. 엥겔스는 인류학자들의 연구를 이용하여 인간 사회에 계급이 출현했던 때에 가족이 생겨났음을 밝혀 냈다.

인간 사회가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것 이상을 생산하게 되면서 사유재산이 등장했다. 사유재산의 등장으로 사회는 불평등한 여러 계급으로 나뉘었다. 소수가 사회적 부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반면 다수는 거의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또 재산권이 등장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전의 성에 따른 노동분업(여성은 경작을 하고, 남성은 사냥을 하거나 목축을 하는 식의 분업)은 여성에게 높은 지위를 보장해 주었다. 그러나 사유재산을 소유한 소수가 사실상 거의 다 남성들인 이상, 이제 그런 성별 노동분업은 완전히 불평등해졌다. 이 때 일부일처제가 등장했다. 재산을 관리하는 남성들이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고, 따라서 누가 자기 아들인지 아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 했기 때문이다. 엥겔스는 모권(여계를 통한 혈통 인정)의 전복이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라고 생각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역사에서 최초의 계급 적대는 일부일처제 하에서 남녀 사이의 적대가 발전한 것과 동시에 나타났다. 따라서 최초의 계급 억압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억압과 동시에 일어났다.

사유재산 역시 다수의 무산 대중에 대한 소수의 지배를 보장해 주는 억압기구로서 최초의 원시적 형태의 국가를 탄생시켰다. 여성들에게 종속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률 체계도 그 가운데 일부가 되었다.

오늘날에는 계급사회가 나타나기 이전의 사회들에 대해 엥겔스가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사실들이 알려져 있다. 그래서 엥겔스가 그 사회들을 잘못 묘사한 점이 많음이 인정되고 있다. 계급사회가 형성된 과정은 엥겔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불균등하고 복잡했다. 그의 글에 나온 세부사항들 가운데 많은 것이 조금은 색다른 사회에서 인용되었다. 그러나 이런 결점들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여성 억압이 계급사회의 산물이라는 그의 분석의 핵심을 여전히 타당하다.

성역압은 인류 역사가 가진 영원불변의 특징이 아니라, 단지 사회의 조직 방식의 변화에 따라 발전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엥겔스의 목적이었다.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라면, 인간이 없앨 수도 있다. 성역압은 사회 조직 자체를 변화시킴으로써만 뿌리 뽑을 수 있다. 가족제도는 계급사회에 너무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계급사회의 파괴, 즉 사회주의의 승리를 통해서만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가족과 여성 억압이 어떻게 동성애자 억압을 낳았는지 이해하려면, 자본주의에서 가족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자본주의는 기존 계급사회 가운데서도 가장 역동적이고 혁명적인 형태이며, 그 경제적 토대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확대시켜야만 발전할 수 있는 사회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주의자 선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부르주아 시대를 그 이전 시대와 구분짓는 것은 끊임없는 생산의 변혁, 모든 사회의 조건의 연속적인 혼란, 영원히 계속되는 불확실성과 동요이다. 낡은 편견과 통념과 더불어 고정되고 뿌리를 내린 관계는 모두 없어지며 모든 새로운 관계는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낡은 것이 되어 버린다.

전체 사회에 적용되는 것은 가족에도 적용된다. 초기 산업화 과정은 생산의 한 단위인 가족의 기초를 허물어 버림으로써 기존 노동계급 가족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여성과 남성과 아이들 모두가 한 가족의 성원으로서가 아니라, 똑같이 '자유로운' 노동자로서 새로운 공장이나

제조소로 끌려갔다. 1840년만 해도 영국 공장 노동자들의 다수가 여성과 어린이들이었다. 그들이 겪었던 끔찍한 생활과 노동조건은 정상적인 가족 생활 비슷한 것조차 파괴했다. 독자적인 생활수단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은 반드시 결혼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마르크스와 엥겔스를 포함해서)이 노동계급에게는 이제 가족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가족은 계속 존재했을 뿐 아니라 번성했다. 하지만 매우 다른 형태를 띠었다. 자본주의는 끊임없는 노동력 공급에 의존했으며, 자본주의 체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가족이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생각을 굳혀갔다. 19세기 중반 이후로 노동계급 사이에서 안정된 가족생활을 다시 일궈 내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있었다. 여성과 아이들을 특정한 일자리에서 점차 배제시키고, '가족임금'을 일부 남성 노동자들에게 지불했던 것도 바로 그러한 노력의 일부였다. 특히 여성들은 불임중에 걸려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산업에서 배제되었다.

가족은 우선 하루하루 일할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즉 노동자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여 자본가들을 위한 잉여가치를 계속 생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했다. 더 중요하게는 미래의 노동자 세대들을 생산하는 수단으로서도 필요했다. 이것은 단순히 아이를 낳는다는 물리적인 생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으로 훈련시켜 건강하고 교육받고 순종하는 노동력을 생산한다는 것을 뜻했다. 바로 이것이 핵가족의 이상이였다.

그런데 이런 이상은 거의 실현되지 못했다. 많은 자본가들이 충분한 '가족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시간제나 전일제로 일을 계속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급에게 새로운 가족을 강요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통제가 광범위하게 부과되었다.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왜냐하면, 많은 남성 및 여성 노동자들이 그런 강요를 기꺼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끔찍하게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조건에서 푼돈을 벌기 위해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핵가족은 유일한 대안인 듯했다. 영, 유아 사망률이 상당히 떨어졌고 여성들의 수명도 눈에 띄게 길어졌다.

마지막으로 모든 가족 성원은 가족이 자기 삶의 일부나마 어느 정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정한 세계 속의 안식처라는 환상을 가졌다. 그러나 핵가족의 재확립

으로 도리어 여성 억압이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가족은 공적인 생산영역과 분리된 '사적' 생활 영역이 되었다. 하지만 이것도 자본주의의 생산 요구에 의해 구성되고 통제되는 영역이었다. 자본주의에서 핵가족이 점점 더 중요해짐에 따라 핵가족을 유일한 생활방식으로 그려내고, 그것에 따른 성적 분업을 미래의 노동자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중요해졌다. 다시 말해서, 가족은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는 물론 이데올로기적 통제까지 가하는 수단이 되었다.

바로 이러한 엄격한 통제 때문에 남녀 동성애자들의 존재 자체가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다. 동성애는 일부일처제 가족이 유일한 생활방식이라는 생각에 도전한다. 또한 성관계가 오로지 재생산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에도 도전한다.

성애는 前자본주의 사회들에서처럼, 사회의 전통과 편견에 따라 규정되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가 통제하는 제한적인 공적인 문제가 되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적어도 소수에게는 성애를 훨씬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은 곱절로 중요해졌다. 오래된 혼락 공동체가 붕괴하고, 그와 더불어 교회의 억압이 사라졌으며, 젊은이들이 독자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가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대도시는 익명의 삶을 보장했다. 이 모든 것이 동성애가 자라고 번성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냈다.

그러자 국가는 일련의 억압적인 법률을 만들고 본보기가 될만한 법정 사건들을 동원해 모든 '비정상적' 성애를 억압하고 동성애자들을 골방에 단단히 가두려 들었다. 사회는 '정상적인' 성행위가 어떤 것인지 규정함으로써 '동성애자'를 사회의 별종으로 만들어 버렸다. 비로 피억압자들이 자신들이 억압당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과 마크를 내세워 힘과 자부심을 드러내곤 하지만, 보통 누가 피억압자인지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억압자들이다.

물론 억압과 잔인함의 정도는 달랐지만 동성애자 억압은 몇몇 前자본주의 계급사회에도 존재했다. 그러나 나머지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이성애와 똑같이 수용했다.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부터 핵가족을 방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책으로서 동성애자 억압이 체계화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인간이 자신의 성을 자각하고 향유할 수 있는 커다란 가능성을 창출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애자 해방을 위해 싸울 수 있게 되었다.

마르크스주의 전통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엥겔스가 처음이거나 끝이 아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동성애자 억압을 포함한 성 억압에 맞서 투쟁하고 조직한 전통을 갖고 있다. 이 전통은 1934년에 끊어졌으며, 1960년대 후반에 다시 발견되기까지 잊혀지거나 역사에서 교묘하게 삭제되었다. 이런 교묘한 역사 왜곡은 주로 공식 공산당들이 저지른 소행이었다. 오늘날 동성애자 해방운동을 다룬 저술가들 대부분이 앞서 말한 전통을 무시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사회주의자들과 대다수의 동성애자 해방 운동가들이 그들 자신의 역사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제2인터내셔널

제2인터내셔널은 대규모의 노동계급 조직이었으며, 제2인터내셔널에서 가장 크고 중요했던 당은 독일사회민주당(SPD)이었다. 독일사민당은 수백만 명의 노동자 당원을 갖고 있었고, 노동자들의 정치는 물론 사회 문화적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고 음주클럽이나 합창단, 자전거타기 동호회 등의 다양한 활동을 조직해서 마치 사회 안에 있는 또 다른 사회 같았다. 오랜 세월 동안 비합법으로 지냈던 독일사민당은 러시아 혁명이 터지기 전에 형성된 가장 크고 강렬한 사회주의 운동이었다.

1880년대와 1890년대에 독일사민당은 사회주의 사상과 활동의 중심이었다. 엥겔스를 이데올로기적 지도자이자 비평가로 삼고, 로자 룩셈부르크와 칼 립크네히트, 아우구스트 베벨,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의 교황'이라는 칼 카우츠키 같은 지도자들을 가졌던 독일사민당은 마르크스주의와 혁명을 내세웠다.

그렇지만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다. 독일사민당은 대중 정당이었지만 가지각색의 경향들이 뒤섞인 꿀꿀이죽 같은 당이었다. 그러나 경향들 가운데 다수는 **비마르크스주의적**이거나 **반마르크스주의적**이어서 혁명적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경향이었다.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이 가장 유명한 반대파로서, 그는 혁명에 맞서 진화론과 점진적 변화를 주장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비록 독일사민당이 입으로는 대개 마르크스주의를 외쳤지만, 실천에서는 개량주의 정당으로 행동했다는 점이다. 독일사민당의 국회

의원들과 노동조합 지도자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기구들은 도리어 자본주의 사회 구조를 형성했으며 그것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계급투쟁 수준이 낮았던 독일에서, 독일사민당은 노동계급과 노동계급 정당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독일사민당은 사회주의가 실천에서 뜻하는 바는, 국기를 손아귀에 넣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서, 당이 노동계급을 대신하여 사회 변화의 주체가 된 것이다. 독일사민당은 영국노동당 좌파 - 사상과 행동이 제각각인 개량주의 - 와 닮은꼴이었다.

하지만 혁명적 사회주의가 사민당 내부에 존재하는 많은 경향들 가운데 한 갈래였던 것처럼, 성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사회주의자들의 전통도 마찬가지였다. 188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성해방 운동은 사회주의 운동의 일부로서 사회주의 운동과 얽혀 있었다. 우리는 이 시기 성억압에 반대하는 투쟁의 역사를 더 광범위한 사회주의 운동 역사의 일부로 이해해야 한다. 독일사민당은 제2인터내셔널의 중심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해방 정치의 중심이기도 했다.

1860년대 프러시아에서는 남성들의 동성애가 금지되었으며, 1870년에는 독일 형법에 동성애 금지조항 - 그 악명 높은 제 175조 - 이 추가되었다.

그래서 일찍이 1860년대에 지도적인 독일 사회주의자들은 동성애자 억압에 맞서 싸웠다. 1860년 요한 밥티슈트 폰 슈바이처(Johann Baptist von Schweitzer: 라살레를 추종하여 라살레주의 조직의 지도자가 된다 옮긴이)라는 남자가 만하임에서 동성애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다. 그는 독일 사회주의 운동의 초기 지도자인 페르디난트 라살레의 변호를 받았으면, 그 후 1863년에 노동자총연합(Universal Workingmen's Association)에 가입하여 지도자가 되었다.

1897년에는 마그누스 히르슈펠트(Magnus Hirschfeld)가 과학적 인도주의위원회(Scientific Humanitarian Committee)를 결성했다. 이 단체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 문제에 관해 여론을 계몽하며 "동성애자가 자신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을 임무로 삼았다.

이것이 최초의 동성애 개혁단체였다. 이 운동의 일부로서 제 175조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청원운동이 시작되었다.

독일사민당은 이 운동에 앞장섰으며 사실상 중심 역할을 했다. 아우구스트 베벨은 1898년 6월 13일 독일연방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법 개정을 주장했다. 진정서에 서명한 사람들 가운데는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칼 카우츠키, 케테 쾰비츠 같은 독일사민당의 최고 지도자들도 들어 있었다.

그러나 동성애자 억압 문제에 대하여 사회주의자들은 시험대에 올려놓았던 쟁점은 1895년에 있었던 오스카 와일드의 재판이었다. 이 사건을 구실 삼아 영국 언론은 거대한 反동성애 운동을 부추겼다. 그 여파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청원운동을 준비하려던 버나드 쇼가 자유당원들로부터 서명을 하나도 받아 내지 못했을 정도이다.

독일에서는 독일사민당 기관지인 『새시대』가 오스카 와일드를 방어했다. 1895년 4월과 5월에 걸쳐 연재된 장문의 2부작 논설에서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은 성도덕에 대한 유물론적인 비판을 제시하고, 사회주의자들이 ‘과학적인 관점’에서 성 문제에 대해 지도력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정상적인’ 성과 ‘비정상적인’ 성이라는 관념에 반대하는 주장을 폈다.

예전에 로마인들, 그리스인들, 이집트인들과 아시아의 여러 민족들은 동성애적 쾌감을 추구했다. 동성간의 성교는 매우 오래되고 널리 퍼진 것이어서 이런 현상이 없었던 인간 문명은 없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도덕적인 태도란 역사적 현상일 뿐이다.

청원운동은 1905년에 독일연방의회에서 독일사민당과 다른 정당들 사이의 논쟁으로 이어졌다. 아돌프 티레가 사민당 편에서 논쟁을 이끌었다. 당기관지였던 『전진』은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이 운동을 다루었다.

한마디로 말해, 당시 독일사민당은 동성애자 억압에 맞선 훌륭한 투쟁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쟁점들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한 이론적 혼란이 있었다. 인간 본성이 불변한다는 관념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관용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베른슈타인의 논설은 이 주제에 관한 독일사민당의 글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이었다. 하지만 성 문제에 관한 법적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이론에는 많은 결함과 혼란이 들어 있었다.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던 사람은 마그누스 히르슈펠트였다. 그는 1890년대부터 1930년대에 걸쳐 동성애자 해방운동의 중심 인물로 활동했다. 그는 남녀 동성애자들이 ‘제3의 성’ - 육체로 보나 정신으로 보나 남성이거나 여성과는 다르고 남성과 여성 사이의 중간쯤 되는 -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상 자유주의 생물학 결정론을 신봉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남성이거나 여성 혹은 제3의 성으로 태어나고, 각각의 성은 미리 정해진 육체적, 정신적 특징을 가지며, 제3의 성도 남성과 여성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사회는 그 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히르슈펠트의 사상은 본질적으로 반동적이었다. 그래서 훗날 나찌는 히르슈펠트의 사상을 악용하여 동성애자들을 ‘유전적 별종’이라며 제거하는 것을 정당화했다.

영국의 좌익은 독일 좌익에 비해 세력이 훨씬 더 약했다. ‘마르크스주의’ 정당들은 규모가 작았고 성 정체를 포함하여 많은 쟁점에 대해 반동적인 태도를 취했다. 개혁을 주장하는 일은 고립된 개인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한 개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에드워드 카펜터였다.

카펜터는 민주주의와 동지애와 성적 자유가 있는 새로운 시대를 사회주의로 보았다. 1894년에 그는 ‘동성애’를 주제로 공개강연을 했으며, 그 내용은 나중에 맨체스터 노동당 출판사에서 책으로 출판되었다. 오스카 와일드 재판 이후 영국을 휩쓸고 지나간 광적인 동성애 혐오증 때문에 카펜터가 고립당하긴 했지만, 그의 책 『성숙한 사랑』(Love's Coming of Age)은 1914년까지 5만부가 팔렸다.

카펜터는 ‘제3의 성’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믿은 것을 제외하고는 히르슈펠트와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급진적이긴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교육과 ‘동지들 사이의 진정한 사랑’의 모범을 통해 새로운 세계가 성취될 수 있다고 믿었던 공상적 사회주의자였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중간적 성’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우라니안 - 그는 동성애자를 이렇게 불렀다 - 의 기질은 인간성에 대한 보편적 열정과 같은 것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라니안들은 지금 사

회를 지배하고 제한하는 금전적, 법적 또는 그 밖의 외적 구속들을 인간적인 애정과 연민으로 대체하여 어느 날엔가 일상 생활을 변화시킬 거대한 운동의 전위가 될 운명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성을 주제로 카펜터가 쓴 네 종의 팜플렛이 모두 출판되었다. 그는 당대 영국 저술가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인물이긴 했지만, 초기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의 사상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베른슈타인은 히르쉬펠트의 사상을 넘어서긴 했지만 개량주의 계획을 계속 간직하였다. 동성애를 수용하도록 사회를 교육해야 하는데 무지와 비과학적인 사고가 문제라는 것이었다. 독일사민당은 동성애를 수용하도록 서서히 사회를 교육하고 변화시켜 가면서 변화의 도구가 되어야 했다. 동성애자들의 활동이 인정받도록 만드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히르쉬펠트가 더 두드러진 역할을 했다.

더군다나 독일사민당은 말로만 강한 인상을 주었지, 그 행동은 정반대 쪽으로 흐르곤 했다. 독일사민당이 남성 동성애를 합법화하라고 주장하고 캠페인을 하고 선동을 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자유주의적인 민권 차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았다. 독일사민당은 사회구조 안에 자리잡은 조직과 단체들을 거느린 채 상당한 노동계급을 확보한 기반으로 삼고 있었다. 독일사민당은 억압의 물질적 토대 - 가족 - 는 비판하지 않았다. 독일사민당은 자본주의 사회구조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핵가족은 독일사민당이 묻혀 있는 '상부구조'의 하나였다.

성해방을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적 전망을 뜻하는 것이다. 거기서는 이성애니 동성애니 하는 형용어구가 사회적 의미를 상실할 것이며, 가족의 중요성이 사라질 것이고,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의 분리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상은 대부분의 독일사민당원들에게 어딘가 낮은 것이었다. 그들의 전망은 혁명적이라기보다는 개량주의적인 전략이었다.

후에 로자 룩셈부르크가 베른슈타인의 주장을 반박했듯이, 개량주의자들과 혁명가들 사이의 충돌은 어떻게 사회주의를 쟁취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인 것으로 보이곤 하지만, 실상 그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둘러싼 충돌이다. 그것은 정말로 사회주의가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로자의 입장이 옳았다는 것은 제1차세계대전 기간에 독일사민당의 행동을 통해 비극적이면서도 생생하게 입증되었다. 사민당은 기관지에서 '전쟁 반대'라는 훌륭한 태도를 취했지만, 정적 곤경에 처하게 되자 전쟁공채 발행에 찬성표를 던지고 '자국' 정부를 지지했다. 제2인터내셔널의 다른 정당들도 거의 모두 똑같이 행동했다. 개량주의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민족주의가 말뿐인 국제주의를 짓밟았다.

이제부터는 볼셰비키와 제3인터내셔널이 성역압에 맞서 투쟁한 사회주의의 전통을 다시 이어 발전시키게 된다.

볼셰비키

1914년 제2인터내셔널의 잔해와 1917년 러시아혁명으로 부터 1919년 제3인터내셔널이 탄생했다. 국제주의자들의 신뢰를 잃은 독일사민당은 더 이상 사회주의 운동의 중심이 아니었다. 러시아혁명의 성공이 쫓길서에 대항한 반란에서 혁명가들과 수십만 노동자들에게 영감과 지도를 제공하는 주요한 원천이 되었다.

제1차세계대전 후, 혁명의 소용돌이가 유럽을 휩쓸었다. 노동자들은 공장을 점거하고 왕궁을 습격했으며 모스크바에서 글래스고우까지, 그리고 핀란드에서 까따루냐에 이르기까지 자본의 지배를 흔들어 놓았다. 많은 낡은 권력구조들이 일소되었다. 그러나 오로지 러시아에서만 혁명의 물결이 노동자 국가를 세우는 데까지 나아갔다. 제2인터내셔널의 낡은 정당들은 자국 지배계급과 손잡고 '질서'를 복구했다. 국제주의자들은 볼셰비키와 더불어 제3인터내셔널을 건설하기 위해 그들과 결별했으며, 러시아를 본보기로 삼아 공산주의 정당을 건설하고자 했다.

러시아 혁명 이전에도 성 정치사가 좌익 역사의 일부였듯이, 20세기에도 성 정치사는 혁명의 운명과 한몸이 되었다.

혁명 후 2개월이 지난 1917년 12월에 볼셰비키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모든 법을 폐지했다. 동시에 낙태를 요구할 경우 낙태를 허용할 것을 법률로 정했고, 이혼 요구가 인정되었으며, 법률상의 혼인 승낙 규정이 폐지되었다. 다른 곳에서 자유주의적 개혁이 수십 년 동안 이루어 놓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볼셰비키는 두 달만에 이루어 내었다. 혁명으로 새로이 만들어진 법적 자유의 범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넓었다.

그러나 그들의 말만 가지고 볼셰비키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볼셰비키는 새로운 법률과 더불어 여성 억압의 물질적 토대를 없애기 위해 가족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했다. 볼셰비키는 여성들이 고역스런 가사 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동식당과 세탁장과 보육원을 세웠다. 그 모든 것이 전쟁의 상처를 입어 헐벗은 나라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그래서 혁명 자체가 그랬듯이 언제나 러시아의 가난이 발전을 가로막았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떻게 사회주의 사회가 성억압을 뿌리 뽑기 시작할 수 있는지 실천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볼셰비크였던 그리고리 바뜨기스는 1923년에 다음과 같이 썼다.

현재 소련의 성관련 법률은 10월 혁명이 낳은 작품이다. 이 혁명이 중요한 것은 단지 노동계급의 정치적 역할을 보장해 주는 정치적 현상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거기서 발전하여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혁명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다.

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한, 그리고 이익을 침해 받은 사람이 없는 한, 국가나 사회가 성 문제에 절대 간섭하지 않을 것을 [소련 법률은] 선언한다. 그리고 소비에트 법률은 유럽의 법률에서는 도덕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동성애, 男色 및 다양한 성적 만족의 유형들을 이른바 '정상적인' 성교로 간주한다.

1921년 베를린, 1928년 코펜하겐, 1930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차례의 세계 성개혁 동맹 국제대회 - 제1차세계대전에 뒤이어 모든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투쟁이 전개되었으며, 이 대회 역시 그 투쟁의 결과물이었다 - 에 소련 대표가 파견되었다.

1920년대 공산당들의 실천과 정치는 이전 시대의 독일 사민당이나 진보적인 개인들의 실천 및 정치와 대조를 이룬다. 그들 [1920년대 공산당들]의 목표는 사회를 변화시켜 동성애를 수용하게 하고 동성애라는 말이 무의미해지게 만드는 거였다. 마르크스의 말을 빌리면, 혁명은 '자본주의의 모든 책략을 일소하고 성억압의 토대인 가족을 대체해야 했다.

그러나 혁명이 시작된 곳이 러시아였다면, 그 혁명의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되는 곳은 독일이었다. 1919년부터

히틀러가 등장한 1933년에 이르는 시기에 독일혁명이 실패를 거듭했던 게 러시아혁명이 고립되고 패배하게 된 배경이었다. 내전과 적군의 침략으로 포위 당하고 고립된 러시아 노동계급은 말 그대로 계급으로서 분쇄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어쩔 수 없이 1920년대까지는 볼셰비키가 산산조각 나고 있던 계급을 대신해서 행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20년대 후반 무렵에는 타락의 과정이 착착 진행되었다. 스탈린의 승리와 1924년에 발표된 그의 '일국사회주의'론은 성해방을 위해 투쟁한 사회주의의 전통에서 결정적인 참패였다. 스탈린이 승리를 거둔 원인들이 가운데 하나는 독일혁명의 실패였다.

독일: 1918-1933년

1918년 병사들과 수병들과 노동자들이 독일 황제를 몰아내자 이제 개량주의적 성격을 공공연히 드러낸 독일사민당이 舊질서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새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로자 룩셈부르크, 클라라 제트킨, 칼 립크네히트 같은 혁명가들은 자신들이 고립되어 있으며 자신들의 정당도 없이 궁지에 몰려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룩셈부르크와 립크네히트는 독일사민당의 지령에 따라 살해당했고, 독일사민당이 수백만 노동자들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덕분에 자본주의는 살아남았다.

노동자들과 병사들이 독일 황제의 궁전을 습격했을 때, 마그누스 히르쉬펠트는 군중들에게 연설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왔고 모든 착취와 억압이 끝났다고 선포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시대는 아래로부터 혁명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낡은 국가기구를 넘겨받은 독일사민당을 통해서 오게 되었다. 개량주의 정당이 통치권을 장악한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이 처음이었다. 따라서 노동자들 대다수가 처음에 '자신들의' 정부를 지지했던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정부가 독일 내부의 깊숙한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에 입증됨에 따라, 계급투쟁은 대단히 거세졌다.

독일의 높은 투쟁 수준은 파업횟수와 당원수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도 반영되었다. 히르쉬펠트가 베를린에 자신의 성연구재단과 그 유명한 성과학연구소를 설립한 것이 바로 1919년이었다. 1921년에 그는 세계 성개혁 동맹 제1차 대회 소집을 도왔는데, 이 대회에서는 러시아의 법률을 다른 나라들이 지향해야 할 모범으로 제시했다.

히르쉬펠트는 사태의 추이에 따라 왼쪽으로 밀리지 않을 수 없었지만, 끝까지 개량주의자로, 독일사민당의 당원으로 남았다. 나중에 이르러서야 몇 가지 측면에서 자신의 개량주의를 문제 삼았을 따름이다. 공산당들의 지지가 없으면 개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조차도 그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대중을 교육하는 데 가장 좋은 토대라고 생각했다.

베를린은 동성애자의 소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낡은 사회의 해체 그리고 낡은 가치에 대한 불안과 의심이 동성애가 용인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영국 작가

인 크리스토퍼 이셔우드나 오든처럼(두 사람 모두 1930년대 공산당의 '심정적 추종자들'이었다)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나 암스테르담에 가듯, 베를린으로 갔다. 이셔우드는 "우리에게 베를린은 소년들을 뜻한다"고 말했다. 동성애를 억압하는 영국과 달리 베를린에서는 내놓고 동성애를 할 수 있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었다. 전쟁에 뒤따른 위기와 불황이 다른 어느 곳보다 더 심하게 독일을 강타했다. 독일에는 조직된 강력한 노동계급이 존재했다. 개혁을 연장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체제는 개혁을 감당할 여유가 없었고, 많은 노동자들은 위기와 불황으로 인해 자신들의 몫이 줄어드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다. 10년에 걸쳐 투쟁이 계속되었지만, 결국 모든 노동자 조직이 나찌의 손에 분쇄 당하고 말았다.

빌헬름 라이히(Wilhelm Reich)

그 시기에 공산주의적 실천과 성해방을 통합시키는 데 앞장섰던 한 인물이 바로 프로이드의 제자였던 빌헬름 라이히였다. 성억압은 자본주의의 지배가 낳은 엄청난 해악 가운데 하나이며, 노동자들이 사회질서를 존중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주된 방법들 가운데 하나라고 그는 생각했다. 또한 성은 잠재적으로 자유를 가져오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힘이라고 주장했다. 진정으로 혁명적인 공산주의 노동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이 성억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공산당은 당원들에게 정치적 이론과 활동을 교육하는 것은 물론, 그들을 성적으로 해방시켜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1920년대에 독일공산당의 당원이었던(1929년에 당에서 제명 당했다) 라이히는 특히 공산청년동맹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는 새로 들어온 당원들이 당연히 레닌의 「국가와 혁명」을 읽고 또 성적인 굴레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론과 실천 모두에서 성적으로 해방된 사람만이 진정으로 혁명적일 수 있었다. 사회주의는 강요된 일부일처제 가족생활의 종말이었다.

라이히의 사상은 혁명의 물결이 여전히 가득 넘쳐흐르던 1920년대초 상황과 잘 들어맞았다. 그러나 1929년쯤에는 러시아에서나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나 모두 그 내부의 태도들이 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이 한창이었을 때에도 라이히의 사상은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 그는 억눌린 성 문제의 개인적인 해결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경향은 부분적으로 프로이드를 계승한 것으로서 그가 공산당과 결별한 후에 더 깊이 전개되었다. 또한 그는 성을 기계적으로 바라보았다. 라이히는 오르가즘은 열이나 빛과 같은 동력의 한 형태로 무언가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오르가즘이 정말로 푸른 광채를 발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해방은 이런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라이히가 프로이드의 성적 발달 단계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프로이드와 라이히 두 사람 모두에게 인간은 거의 모든 원인으로부터 성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따라서 사회가 통제하고 사회에 의해 규정되는 무정형의 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과정이 단선적으로 전개된다고 생각했다. 성이 정해진 단계들을 통과한다는 것이었다. 한 개인이나 사회의 건강성은 이러한 단계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었다. 자본주의가 가족을 강요하고 성적 쾌락을 억누름으로써 개인의 성적 발달을 제한한다고 라이히는 생각했다.

그렇지만 이 이론에서는 동성애가 모든 사람들이 거쳐 가야 할 단계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남녀 동성애자들이 성의 초기 단계의 뒷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그들의 '해방'은 이성애로 '진보하는' 것이었다. 동성애는 퇴행이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라이히는 나찌의 등장을 성억압 및 동성애와 연결짓게 되었다.

(곤잘레스 그림/메로비츠 글, 신현욱 옮김. 『성과 정치』 오월, 1990 참조 - 옮긴이)

한낮의 암흑 - 히틀러와 스탈린

1930년대는 사회주의자들에게 가장 잔인했던 시대들 가운데 하나였다. 사회주의자들은 그 10년 동안 독일과 스페인에서 파시즘의 승리를, 그리고 스탈린이 소련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지배하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

독일은 소련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공산당과 대주정적인 사회민주당을 보유한 데다 동성애자 해방운동의 심장부였다. 그런데도 투쟁 한 번 없이 히틀러가 집권했다.

나찌는 거리의 통제권을 손에 쥐기 위해 돌격대에 소속된 동성애자 돌격대원들을 이용하였다. '긴 칼의 밤'에 돌격대는 친위대 손에 제거당했고, 친위대가 테러의 주된 도구가 되었다. 나찌의 일부 초기 지도자들이 동성애자였다는 이유로 나찌가 동성애자들에게 관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나찌의 야만적인 탄압으로 인해 쓸모없는 것임이 입증되었다.

1933년 집권하면서부터 나찌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동성애자들, 사회주의자들, 집시들과 노동조합원들도 함께 공격했다. 히르쉬펠트의 연구소는 습격을 받았고, 연구내용들은 불태워졌다. 노동조합은 해체되었고, 사회주의 정당과 공산당은 금지되었으며, 활동가들은 검거되어 강제수용소에 수용되었다. 가스실이 수십만 명의 동성애자를 포함하여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갔다. 오늘날 동성애자의 상징으로 쓰이는 연분홍빛 삼각형은 히틀러의 수용소에 갇힌 동성애자들이 달았던 표식에서 비롯한 것이다.

새로운 독일은 노동계급 조직의 폐허 위에 건설되었다. 속죄양이 되었던 유대인들과 더불어 노동계급 조직도 뭔가 '비정상적인' 요소로 취급당했고, 민족적 순수성과 지배민족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불건전한 요소들'은 근절되었다.

나찌가 지배하던 독일 사회는 자유주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순전한 민족주의, 인종주의, 야만적 성차별주의로 가득 찬 자본주의였으며, 계급사회와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무시무시한 결과였다.

그러나 소련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잔인한 방식으로 사태가 전개되고 있었다. 1920년대 후반에 스탈린은 소련 정부가 서방 자본주의와 마음놓고 경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강제 공업화 계획에 착수했다. 혁명의 모든 성

과물이 뒤엎어졌고, 러시아 노동자와 농민들이 공업화에 드는 무거운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노동자들의 권리와 조직은 산산조각 나고, 생활수준은 하락한 반면, 노동속도는 급격히 빨라졌다. 이런 반혁명에 저항했다는 강제노동이나 유형, 혹은 사형을 당하기가 일쑤였다. 혁명의 잣대미로부터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즉 국가자본주의가 생겨나고 있었고, 그 임무는 소련을 근대화하여 서방을 따라잡는 것이었다. 공산당 상급간부 출신으로 구성된 국가관료가 새로운 지배계급이 되었다.

그 와중에 또다시 수백만이 시베리아의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죽어갔다. 노동계급의 당을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뒤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전히 혁명가로 남아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여 없애는 것뿐이었다. 많은 고참 볼셰비키들이 당에서 아래로부터 사회주의와 해방을 위해 투쟁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은 당에서 축출 당하여 추방되거나 살해되었다. 스탈린의 숙청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혁명가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트로츠키를 중심으로 반대파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좌익의 패배는 동성애자의 패배로 이어졌다.

1920년대에 혁명이 타락해 가면서 여성들이 이룩했던 성과들도 서서히 파괴되어 갔다. 공공취사장과 보육원은 폐쇄되거나 사용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혁명으로 시작되었던 가족 소멸 과정은 완전히 정지되었다. 스탈린의 반혁명은 오히려 가족의 질서와 건강한 국가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제도로 장려되었다.

1934년에는 볼셰비키가 제정했던 진보적인 성에 관한 법률이 모두 파기되었다. 동성애는 불법화되었다(지금도 소련에서는 불법이다) 지배계급의 일원이 아니면 낙태도 불가능했다. 여성들은 어머니로서 이상화되었고, 자녀의 수에 따라 훈장을 받았다.

성 정체 문제를 다룬 소름끼치는 방식과 관련하여 스탈린의 소련과 히틀러의 독일은 글자 그대로 닮은꼴이었다. 독일에서는 동성애가 '볼셰비키적인 행동'이라고 비난당했고, 전세계 공산당들(이제는 사실상 소련 외교정책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과 소련은 동성애를 '부르주아적 일탈행위'로 규정했는데, 일부 좌익들에게는 아직도 이런 식의 관념이 남아 있다. 1930년대 양쪽의 포스터와 선전은 거울에 비춘 듯 서로 똑같았다. 양쪽 모두 팔에 아이들을 안은 몸집 크고 건강한 어머니 모습을 제시했다. 스탈린주의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판에 박힌 성차별주

의 형식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나찌 예술과 똑같았다.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스탈린주의가 좌익에 끼친 영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났다. 스탈린주의는 아래로부터 사회주의, 노동계급의 창조물로서 사회주의, 그리고 해방을 향한 투쟁의 기억들을 모두 파괴하였다.

영국에서는 다른 모든 경향들을 배제한 채 스탈린주의 공산당과 개량주의 정당, 이 두 경향이 압도했다. 성애에 관한 이론과 실천에서 양측 모두 반동적이었다. 공산당은 앞서 서술했던 소련에서 퍼져 나온 모든 사상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리고 노동당은 감리교 및 '점잖은 노동계급'과 오랫동안 결합해 있었다. 성적 '일탈행위'를 하려는 생각은 무엇이든 지배계급적이거나 중간계급적인 변절로 간주되었다.

레닌의 표현대로 '억압받는 사람들의 축제'였던 러시아 혁명에 대한 기억은 거의 사라졌다. 트로츠키를 중심으로 한 고립된 소그룹들만이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다.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은 왜곡되었다. 투쟁이 솟구쳐 오른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들의 사상이 재발견될 수 있었다.

스탈린주의 전통은 동성애자 해방 투쟁을 단순히 포기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한 술 더 떠서 둘다 똑같이 쇠퇴하는 타락한 자본주의의 산물이라며 동성애와 나찌를 연결지었다. 당시 공산당의 전형적인 태도가 다음의 인용구에 잘 나타나 있다. 이것은 미국 잡지 『신대중』(The New Mass)에서 발췌한 것으로, 하필이면 메이 웨스트 극(Mae West Play)에 대한 평론을 싣고 있다.

내향성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계급병이며, 방탕한 생활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방탕한 생활은 더 이상의 자국이나 흥미 유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침내 심각한 권태로 귀결된다. 내향성은 언제나 변함없이 새디즘과 매저키즘이라는 한 쌍의 변태적 요소와 결합해 있으며, 대개 쇠퇴하는 계급의 몇 안 되는 대표자들 사이에서 나타난다. 히틀러주의가 새디스트적인 잔인성을 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불치병의 증상이다.

히틀러 총통이 등장하면서부터 비로소 동성애는

정치가의 자격이라는 지위로 격상되었다.

이 글이 씌어지고 있던 바로 그 무렵에, 수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히틀러에게 체포되어 가스실에서 죽어갔다.

그래도 공산당의 대열 속에는 유명한 동성애자 작가들과 공산당의 심정적 추종자들 - 오든, 크리스토퍼 이셔우드, 스티븐 스펀더, 포스터 등 - 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당시에 침묵을 지켰다. 그것은 얼마간은 죄의식(동성애자로서의 죄의식과 뒤섞인 중간계급으로서 죄의식) 때문이었고, 얼마간은 잔혹한 시대 때문이었다. 동성애자였던 공산당 추종자들 중에서는 오직 앙드레 지드 한 사람만이 동성애 문제에 관한 소련의 반동적인 입장을 비판했는데, 그는 그것 때문에 '좌익'들로부터 지독한 공격을 당했다. 1930년대 공산당 추종자들 대다수가 1940년대와 1950년대에는 좌익의 정치를 버리고 떠났으며, 일부는 우익 쪽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오든은 다시 로마 가톨릭교로 귀의했고, 이셔우드는 동양 신비주의에 심취했다.

그러나 파시즘이 상승기류를 타던 1930년대에는,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은 아무리 미심쩍더라도 스탈린주의적 공산주의 사상을 유일한 희망으로 삼았다.

동성애는 골방으로 숨어 버렸고, 더 이상 좌익 전통의 일부가 아니었다.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소유되었거나(TBH-to be had', '그렇고 그렇(so)'거나 '동성애자(gay)'인 - 내막에 밝은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암호문자들 - 사람들의 비밀스런 세계에 속하는 것이다. 지하로 숨어 동성애자 주점, 은밀한 클럽, 공중화장실의 비밀 암호와 비밀 언어의 세계로 들어가 버렸던 것이다.

스톤월 폭동과 동성애자 해방운동의 상승

1950년대말에 들어서야 비로소 스탈린주의라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1956년 헝가리에서,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그리고 1970년 폴란드에서 두 세대에 걸쳐 얼어붙어 있던 아래로부터 계급투쟁이 다시 동, 서방 지배자들을 위협하였다.

그러나 투쟁의 분출이 가장 많이 감지되고 좌익의 사고를 새롭게 변화시킨 것은 서방에서였다. 동성애자 해방전선(Gay Liberation Front - 이하 GLF)을 낳은 모태가 되었던 스톤월 폭동은 좌익 내부에서 동성애자 해방과 자유로운 성을 다시 제기하게 된 전환점이었다. 그러나 이전의 역사가 더 폭넓은 계급투쟁의 일부로서나 이해될 수 있듯이, 동성애 정치의 생성과 전개 역시 더 폭넓은 배경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스톤월 폭동은 1920년대 이후에 볼 수 없었던 투쟁을 배경으로 일어났다. 자본주의 시대 전체에 걸쳐 억압받는 사람들의 폭동은 숏하게 있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일반화된 투쟁이 있는 시기에야 어떤 결실이란 맺을 수 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흑인 폭동이 흑표범당을 탄생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스톤월 폭동은 곧바로 정치운동을 낳았다. 동성애자 해방전선(GLF)은 정치투쟁의 격동 속에서 태어났다.

격동 그 자체가 일어난 데에도 많은 요인들이 작용했다. 부분적으로는 자본주의 자체에서 생긴 변화의 결과였다.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호황이었던 전후 호황이 1940년대에 체제를 불황의 늪에서 구해 냈고, 이것은 1950년대와 1960년대 내내 계속되었다. 서방 경제가 팽창함에 따라 노동력이 부족해졌고, 수백만의 여성들이 새로이 확장된 경공업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되었다. 전통적인 가족생활은 빠르게 바뀌어 갔다.

전후 호황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가족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였다. 여성들을 일터로 끌어내어 놀라울 정도의 경제적 독립을 제공한 것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들의 높아지는 열망을 충족시키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개혁을 허용한 것이다. 이런 개혁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복지국가'였다. 복지국가도 물론 체제의 온갖 성차별적이고 반동적인 오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성들이 가정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피임약이 개발되고 피임법에 관한 정보를 폭넓게 입수할 수 있게 되면서 마침내 이성애자들의 성과 생식의 결합관계가 끊어졌다.

1930년대 대량 실업의 상황과 같이 노동계급이 등 비빌 데라곤 가족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은 끝났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쉴 새 없는 임신의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방임적인 1960년대'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자본주의 자체가 성장한 결과였다.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앞날에 대한 기대가 커짐에 따라 20세기 전반을 지배했던 낡은 도덕적 가치들이 허물어졌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반동적인 사상의 지배를 위태롭게 만든 것은 바로 투쟁이었다는 점이다. 1920년대와 1930-40년대의 패배 이후, 1950-60년대에 걸쳐 노동계급의 규모와 자신감이 커졌다. 알짜배기 파업들이 자주 일어났고, 대개 승리로 끝났다. 바로 이렇게 노동계급이 자신감 있고 강력한 상황에서 대중투쟁이 터져 나왔다.

거대한 투쟁 물결이 산업화된 세계 구석구석을 휩쓸면서 - 미국의 반전운동에서, 1968년 프랑스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1969년 이탈리아에서, 1972년과 1974년 영국에서 - 1960년대 후반 동, 서방 체제는 크게 뒤흔들렸다.

증대하는 사회 불안과 높아가는 투쟁 물결의 주된 초점은 베트남 전쟁이었다. 미국에서는 수백만이 참여한 반전운동이 일어났고 워싱턴을 겨냥한 반전시위가 수도 없이 일어났다. 흑인들이 평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자신들에 대한 억압에 저항하기 시작하면서, 흑인 거주지역이 굶직한 폭동의 무대가 되었다. 많은 초기 활동가들이 민권운동의 교훈과 경험을 본보기로 삼으면서, 여성운동이 꽃피었다.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체제에 도전하고 억압을 인식한 채 맞서 싸우던 시기였으며, 혁명적 좌익이 성장하여 사회로부터 완전한 소외를 극복한 시기였다. 또한 스톤월 폭동을 통해 동성애 정치가 부활된 시기이기도 했다.

스톤월 폭동의 전개과정

사건의 발단은 1969년 6월 27일 금요일 밤 스톤월 바에서 비롯했다. 여느 때처럼 술집은 만원이었다. 스톤월은 뉴욕 시내 그린위치 빌리지의 크리스토퍼 거리에 있는

게이바였고, 그때도 지금처럼 그 도시의 동성애자 중심지였다. 남성 동성애자들 200여 명이 꼭 들어차 있었고, 그 중 50명 남짓은 여장을 하고 있었다.

스톤월은 볼품없는 싸구려 술집이었고, 손님 대부분이 젊은 노동계급 출신이었다. 게이바가 대개 그렇듯 거기도 마피아가 운영했기 때문에 입장료와 술값이 비쌌다. 경찰에 은밀히 돈을 찢러 주지 않고는 문을 열 수 없었다.

경찰에 상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따금 경찰의 현장급습이 있었다. 1969년의 그 더운 밤에도 경찰관 8명이 스톤월을 급습했다. '동성애 하는 남자들'의 바였기 때문에 8명밖에 오지 않았다. 그들이 저항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경찰은 무슨 말썽이 생키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우선 수색은 평소의 관례대로 행해졌다. 경찰서로 연행하기 위해 경찰이 동성애자들을 경찰수송차에 태웠다. 그들은 경찰서에 가서 심문을 받고, 신원확인을 위해 감금되었다가, 미성년이거나 여장을 했다거나 등등의 무슨 이유에서든 필요한 경우에는 기소될 판이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군중이 경찰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항의하며 술집 주위로 몰려들었다. 갑작스레 불어난 군중은 점점 더 노하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기도 전에 경찰은 敵意를 드러내며 다가오는 군중과 마주서게 되었다.

경찰들은 총을 뽑아 들고 텅 빈 바 안으로 후퇴했다. 군중이 수송차에 있던 동성애자들을 풀어 주고, 경찰들이 간혀 있는 스톤월을 포위했다. 꼼짝없이 안에 갇힌 경찰들은 전화로 경찰서에 도움을 청했다.

연락을 받은 본부는 보통 하렘에만 출동하는 뉴욕의 중무장 진압반인 '전투경찰부대'를 파견했다. 이것이 폭동에 불을 붙였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고, 화재경보기가 울려 대고, 쓰레기통이 미사일로 사용되고, 경찰차는 불에 탔다.

폭동은 해질 무렵 시작해 새벽녘에 끝나면서 3일 밤 정도 계속되었다. 경찰은 그 지역에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8월에 동성애자 해방전선(GLF)이 조직될 때까지 여름 내내 소규모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다.

GLF는 경찰은 물론 뉴욕 전체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정상적인' 행위를 가장한 일상적인 억압들에 대해 사람들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GLF는 게이바 소유주

들에 대한 반대운동을 일으켰다. GLF의 눈에 그들은 부패한 경찰과 손잡고, 비싼 값을 뒤집어씌워 동성애자들을 잡아먹는 기생충이나 다름없었다. GLF는 공개집회를 열고, 신문 『성과』(Outcome)을 발행했다. 그리고 경찰의 손에서 크리스토퍼 거리를 되찾아오는 행동의 날, 즉 거리에서 솔직하게 동성애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날을 정했다.

오늘날에는 스톤월 폭동을 기념하는 동성애자들의 당당한 시위가 세계 도처에서 거행된다(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십만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모인다). 그 폭동은 어느 정도는 '핑크 경제'의 소유주들에게 맞서는 운동이었지만, 어처구니없게도 오늘날에는 바로 이 소유주들이 그런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

스톤월 사건의 결과와 성과

GLF는 미국 정부의 적의 이름을 따서 베트남이나 북베트남이라고 자처했다. 이것은 자신을 혁명적 투쟁과 동일시하는 데서 비롯했다. 오늘날에는 보기 드문 일이지만 당시에는 흔하들 그랬다. 1970년대 초반 동성애자 해방운동이 가졌던 정치는 문제점이 많긴 했어도 혁명적인 전망에서 출발했고, 동성애자 억압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서 싸우는 데에 중요한 돌파구가 되었다.

GLF는 거리에서 태어난 투쟁조직이었고 대개의 시간을 거리에서 투쟁하며 보냈다. 다음과 같은 GLF의 슬로건에서는 동성애자 억압에 대한 그들의 새로운 분석이 압축되어 있다. '골방에서 나와 거리로', '천천히 큰 소리로 말하라, 나는 당당한 동성애자다', '구역질나는 건 내가 아니라 나더러 구역질난다고 말하는 사회'

동성애자들이 억압적인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 사회는 바뀌어야만 한다는 사실이 강조되었다. 그런 변화를 위해 남녀 동성애자들이 거리에서 공공연히 투쟁할 때에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동성애자 억압에 반대하는 투쟁은 동성애자임을 뚜렷하게 밝히는 데서 시작된다. 동성애자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뚜렷하게 밝히고, 그들을 괴롭히는 세상에 맞서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 GLF는 이 모든 일을 훌륭히 해냈고, 당당하게 한 걸음 전진했다.

뚜렷하게 자기가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것은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아마도 이것이 동성애자 해방

운동이 이룩한 가장 중대한 발전이었을 것이다. 어느 누구보다도 동성애자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 자신이다. 사회에서 '비정상적'이라고 간주되는 성애를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의 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GLF는 동성애자 억압을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투쟁을 통해서도 그것을 극복할 방법의 일반적인 기초를 확립했다. GLF는 흑표범당의 토론회에 참석하여 그들의 드센 동성애 반대사상을 비판했다.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GLF가 그 논쟁에서 승리했다. GLF는 그저 동성애 문제에만 개입한 것이 아니라,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에도 참여했다.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즉 당시 사람들이 흔히 하던 말대로, 자본주의를 박살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스톤월 사건의 결과와 약점

1970년대에는 영국에서도 GLF가 생겨나 2-3천 명 정도를 거리에 집결시킬 수 있는 세력으로 성장했다. 그렇긴 해도 GLF는 본래 미국의 산물이었다. GLF가 때때로 보여주는 순진한 낙관주의는 미국적인 배경에서 생겨났다. 그들의 약점은 거기에 집약되어 있다. 물론 그런 식의 약점은 대부분의 서방 좌익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이긴 하지만 말이다.

예를 들면, GLF는 '생활 속에서 혁명을 실천'하려 했던 - '좋다고 느끼면 그렇게 행동하라', 또는 '말하지 말고 행동하라'하는 식으로 - 미국 신좌파의 히피나 여피들의 영향을 받았다. 기존 좌익의 이론과 오랜 정치를 업신여기면서, 다음해나 아니면 적어도 2-3년 안에 혁명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당장 혁명을 원하는 분위기였다. 스탈린주의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투쟁의 물결로 커다란 모택동주의 정당들이 생겨났다. 이런 정당들은 성 정치에서 舊공산당들만큼이나 반동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동성애자 해방운동은 직접 투쟁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었지만, 그밖에 성차별주의의 본질에 대한 폭넓은 이해나 이론은 거의 갖추지 못했다. 놀랄만한 진전을 보였던 때이지만, 투쟁이 기울면서 동성애자 해방을 향한 혁명의 길은 불투명해 보였다. 투쟁의 수준이 끊임없이 높아지리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계급과의 접촉은 거의 없었다. 1970년대초의 영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계급투쟁과 억압에 맞선 투쟁의 주기가 일치하지 않았던 탓이다.

게다가 舊공산당에 대한 반발은 어떤 구조적, 조직적 형식도 불신하게 만들었다. 당내 민주주의라곤 전혀 없었던 스탈린주의 정당의 형태가 일반적인 조직의 필요성 - 토론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결정에 따르는 조직구조의 필요성 - 과 혼동되었다. 그 결과 議長이나 형식도 없이 몇 시간 동안 회합을 갖는 등 비조직적인 혼란으로 뒤범벅되었다.

영국에서는 이들과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다. 계급투쟁이 한창이던 1970년대에 GLF가 탄생했다. 노동자들의 보수당 정부에 맞서 이기고 있었다. 당시 대부분의 활동가들에게 노동계급은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세력임에 틀림없었다. 그래서 억압에 맞선 투쟁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세력으로서의 노동계급과 더 쉽게 연대할 수 있었다. GLF의 분건대는 탄광 노동자들과 펜턴빌의 항만 노동자들을 지지하여 보수당 정부의 노동조합법에 반대하는 시위에도 참여했고, 지방의회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세입자들의 운동에도 참여했다.

수년간 쌓인 편견이 허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는 없다. 때문에 이들 행렬 속에서 GLF 활동가들이 열렬히 환영받는 일은 드물었다. 하지만 시위대열에서 강제로 쫓겨난 적도 거의 없었다. 이렇게 해서 영국 GLF는 미약하게나마 미국 운동에서는 전혀 없었던 조직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이루어냈다. 그 덕분에 초기에는 미국 운동이 가진 최악의 약점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차츰 투쟁이 퇴조하면서, 이런 사실이 GLF로 하여금 노동당에 대해 더 많은 환상을 갖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1980년대

대중투쟁 시기는 다양한 수위로 체제를 위협했다. 하지만 한 번도 체제를 돌파하지는 못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투쟁의 물결이 퇴조하자, 전통적인 개량주의 정당들이 다시 노동자 운동에 대해 자신들의 지배력을 주장했다. 노동자들의 성과물은 억눌리게 되었고, 운동은 수 세에 물리게 되었다. 1976년 영국에서는 노동당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도입했다. 그 결과 싸우고자 했던 노동자들이 노조 지도자들에 의해 고립되면서 더욱 후퇴하게 되었고 사기가 더 떨어졌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후퇴는 계속되었다. 계급투쟁은 1970년대의 기동전이라기보다는 가끔씩 접전이 벌어지는 진지전 양상을 보였다. 과거의 성과들은 철저히 공격당했고 노동자 운동은 포위되었다. 하지만 노동조합 조직의 핵심 - 작업장 내의 현장 노동자 조직 - 은 손상되지 않았다. 1920년대나 1930년대에 겪었던 패배만큼 쓰라린 패배는 아니었지만, 정치가 한결같이 우익 쪽으로 쏠리게 되기에는 충분했다.

GLF 이후 동성애자 해방운동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이런 정치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성애자 해방운동은 노동당이나 생활양식 정치 속으로 (혹은 양 쪽 다로) 움츠러들어 새로운 분위기에 적응했다. 동시에 체제의 위기가 더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우익은 1960-70년대 성과물을 더욱 매섭게 공격했다.

GLF는 계급투쟁이 퇴조기에 접어들기에 앞서 붕괴했지만, 동성애자 해방운동을 좌익의 정치적 용어로 되살려 내는 일을 해냈다. 혁명운동은 동성애자 해방운동으로부터 배우기도 했고, 또 성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잃어버린 사회주의의 전통을 되찾기도 했다.

GLF는 CHE(동성애자 평등권 운동 - Campaign for Homosexual Equality) 같은 당시의 기성 동성애자 개혁 단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런 단체들은 변화란 조심스러운 캠페인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라고 - 실제로 1960년대에는 이렇게 해서 법률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 보았다. 가두 캠페인을 벌이고 체제를 규탄하는 GLF의 활동은 CHE가 보기에 남녀 동성애자들을 욕이나 얻어먹게 하는 짓에 불과했다. 해당 위원회와 비공식적인 권력통로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다

시 말해서 기존 체제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진진하는 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초기 동성애자 해방운동은 이런 시각에 맞섰다. 하지만 또다시 이런 시각이 동성애 정치의 지배적인 형태로 자리잡았다. GLF의 활동으로 가장 이득을 본 사람들은 CHE와 동성애를 이용한 기업가들이었다. 책임자와 은밀히 밀실협상이나 하던 CHE가 이제는 공개적인 압력단체로 변신했고, 동성애의 무대는 비밀클럽에서 벗어나 시장 한복판으로 옮겨졌다. 동성애자 운동의 활동가들이 열어 놓은 새로운 시장에서 핑크 경제가 번창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동성애자 해방운동이 아무리 급진적이라 해도 그 정치의 핵심에 결정적인 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남녀 동성애자들의 억압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믿었다. 그러나 시작하면서부터 운동 내부에 분열이 생겼다. 여자 동성애자들은 초기 단계에 이미 남자 동성애자들과 사이가 틀어졌다. 이성애 하는 남자들만 남성우월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GLF는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여자 동성애자들이었다. 1970년대초부터는 많은 여자 동성애자들이 정치적으로 여성운동과 분리주의 쪽으로 기울었다. 사실상 동성애자 해방운동의 좌, 우파 모두가 더 이상 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게 되었다. 그저 적당히 사회 안에 자리잡을 방도가 없나 궁리할 뿐이었다. 남자 동성애자들은 더 넓은 무대를, 여자 동성애자들은 남자로부터 해방된 생활 방식을 추구했다.

동성애의 무대는 전례 없이 넓어졌다. 동성애자 밀집지역의 클럽과 디스코텍, 상점들은 동성애자들을 평균 이상의 소비력을 지닌 특별한 유형의 소비자로 만들었다. 이제는 게이 패션(그 중 클론이 가장 유명하다)과 동성애자 휴양지도 생겨났다. 동성애자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소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동성애 관련 산업들은 이제 자신들만의 협회를 가지고 있다. 이 협회의 지배적인 사상은 본래 동성애자들의 언론에서 형성되었다. 『동성애자 소식』(Gay News)지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동성애자들은 단지 계급을 넘어서서 공통의 이해관계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다. 더 나아가 수세기를 가로지른, 동성애자 예술가들의 작품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동성애적 감수성'이라는 게 있다고 했다.

모든 동성애자들이 이런 동성애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크리스토퍼 이서우드의 소설을 읽거나 오페라를 즐기고 소나무 가구를 좋아한다는 등의 조잡한 이미지가 동성애자들에게 붙어다니는 듯했다.

이것을 실제로는 중간계급의 생활방식을 그대로 그려낸 것이었다. 이 정도로 널리 퍼져 있는 것을 보면, 동성애자 해방운동 안에서 중간계급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모든 동성애자들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생각은 실상 한 계급과 그들이 이해관계가 다른 계급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억압에는 많은 매개체(경찰, 학교 등)가 있으며, 그 매개를 통해 억압의 존재를 감지하게 된다. 그러나 동성애자 억압은 그들 자신의 억압에서 시작된다. 적대적인 세상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드러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중간계급 동성애자들에게는 그것이 훨씬 수월하다. 세상에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으려면 그럴만한 공간과 자신감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노동계급보다는 중간계급에게서 이런 모든 조건들이 쉽게 발견된다. 남녀 동성애자들의 대다수는 노동계급이다. 그들은 동성애자임을 세상에 드러내지도 못하고 궁지도 없다. 그런데다 아마도 심중팔구는 결혼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밀폐된 곳에 갇혀서 자신들의 성애를 드러내지도 못하고 일생을 보낸다. 우익의 반격에 가장 심하게 얻어맞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대다수이다. 동성애자 해방운동은 특히 이들 대다수의 사람들을 그 운동에 끌어들이는 데 실패했다.

노동당

GILF가 완강했던 1970년대에는 투사들이 노동당에 신경 쓸 겨를이 거의 없었다. 대다수의 혁명가들이나 동성애자 활동가들에게 노동당은 활동의 중심이 아니었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 동성애자임을 솔직하게 드러냈다는 이유로 많은 남녀 동성애자들이 해고당했다. 그러자 투쟁이 툭툭 불거져 나왔다. 노동당은 이런 운동에 동참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노동당 지방의회가 해고에 앞장서기까지 했다! 1979년에 수잔 웰은 레즈비언임을 솔직하게 드러냈다는 이유로 뉴햄의 노동당 지방의회에 의해 해고당했다. 이것은 술한 사례들 가운데 하나

에 불과했다.

전통적으로 성 정치에 관한 노동당의 전력은 매우 보수적이었다. 1920년대 성개혁 운동에서도 노동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동성애를 상류 계급의 非行쯤으로 여기는 강경한 청교도적 감리교파의 기질이 있었다. 이런 태도는 스탈린주의와 아주 비슷했다. 1960년대에 노동당은 동성애자들의 권리나 그 어떤 법률개혁도 옹호하지 않았다. 그런 일들은 언제나 의회 내 자유투표의 결과였다. 노동당은 보수적인 두 지지층, 즉 감리교 유권자들과 가톨릭 유권자들을 늘상 의식했다. 그래서 피억압 계층의 옹호자 역할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심지어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투쟁처럼 노동당이 '단단히 책임지겠다'는 사안에 대해서도 노동당의 행적은 보수당과 다를 게 없다. 인종차별적인 이민규제의 역사가 그 사실을 증명해 준다. 동아시아로부터의 아시아계 이민의 제한이나 2계층제¹⁾ 영국 시민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도 노동당 정부였다. 백인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표를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한 나머지 원칙에 대한 책무를 저버렸던 것이다. 하지만 노동당의 의무 태만이 단순히 불성실함이나 개인적인 배신에서 비롯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개량주의의 한계 때문이다. 노동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있을 때에도 실질적인 권력은 그들에게 없다. 여전히 국가의 운영권을 쥐고 있는 건 선출되지 않은 공무원이나 판사, 군장교 등이다. 일개 노동당 정부가 그들의 행실과 편견을 제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아니더라도 꽤 많은 1970년대 동성애자 활동가들이 지금은 노동당에 들어가 있다. 동성애자 밀집지역에 반대할 정도로 이제 동성애자 해방운동은 거의 개량주의와 한통속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떻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1970년대 계급투쟁이 침체되면서, 당장 변화가 일어나리라 기대하던 많은 활동가들은 사기가 떨어졌다. 이미 노동계급에게는 사회를 박살내고 새 세상을 건설할만한 힘이 없는 듯했다. 이 막다른 골목을 빠져나갈 길을 제시해 주는 게 노동당인 것 같았다. 남녀 동성애자들이 자율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노동당의 광범한 교회조직이 제공해 준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1 법제화된 개념은 아니고 범죄자, 동성애자 등을 천민으로 분류하는 것 - 옮긴이

그들은 더 폭넓은 노동운동의 일부가 되고, 노동당 조직을 통해 사회를 서서히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은 혁명적인 변화를 포기하고 점진적인 개혁을 택했다. 그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적당한 사람들을 골라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했다. 말만 달랐지 정치에서는 GLF 이전의 CHE 플로 되돌아간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한편에서는 노동당 내 일부가 변하고 있었다. 당의 왼편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노동당 정부의 최근 행적에 환멸을 느끼고서 전통적인 노동당 정치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1980년대에는 토니 벤이 신좌파의 지도자가 되었다. 단 순히 노동당 대회에서 합당한 결의안(노동당 정부는 늘 상 이것을 묵살했다)을 내오는 것뿐 아니라, 활동가들이 하원의원들과 정부를 통제할 수 있도록 당의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또한 신좌파는 1970년대 운동의 핵심을 추출해낸 새로운 정치를 받아들였다. 그 결과 이전의 노동당 좌파들보다 훨씬 강력하게 억압에 맞선 투쟁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것을 위하여 두 가지 상호보완적인 전술이 채택되었다. 하나는 당의 정책과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노동당 내부에서 투쟁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즉각적인 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해 지방의회에 있는 좌파의 기반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특히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이전 어느 때보다 더 힘차게 옹호하는 것을 뜻했다. 노동당 대회에서 소수파는 평등 고용정책을 통과시키고, 동성애자 조직에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남녀 동성애자 분과위원회를 창설했다. 그리고 1986년 노동당 대회에서는 정식으로 동성애자 권리에 대한 지지가 확인되었다. 이 사안을 다음번 선거강령에 포함시키는 데는 3분의 2의 득표차가 필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이 기반한 선거주의 때문에 동성애자 권리를 옹호한 이러한 새로운 정책은 언제나 실행되지 못했다. 1983년 이후로 동성애자 권리에 대한 지지는 당 내부와 우익 양 방향에서 모두 공격받게 되었다. 이런 공격 앞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후퇴했다. 反동성애 감정은 넓고도 깊게 퍼져 있으며, 불과 지난 몇 해 사이엔 더 엄청나게 강해졌다. 언론이 에이즈에 대해 떠들며 병적인 히스테리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에이즈를 '동성애로 인한 전염병'으로 묘사했다. 그런 이데올로기적 영향 때문에 동성애자 운동과 노동당 안의 동

성애자 활동가들은 더 더욱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동성애자 권리에 대한 지지 여부가 시험대에 오를 때마다, 노동당은 빈번히 극적으로 실패했다. 1983년 버몬트 보컬선거에서 피터 태첼은 여전히 언론이 꼬집어내는 최악의 反동성애적 모함을 받게 되었다. 당시 노동당 당수였던 마이클 풋은 그를 모른 척했다. 그리고 보도된 바에 따르면, 닐 카녹은 피터 태첼에 대한 마녀사냥에 관해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고 한다. "피터의 문제는 마녀와 요정 - 요정(fairy)은 구어로 남자 동성애자를 뜻한다 - 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태첼은 그의 (좌익적인) 지구당으로부터 공식적인 자리에 나타나지 말고, 비난에도 응수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결국 노동당은 거센 동성애 반대운동에 공공연히 대항하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그 문제를 피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 문제가 운동의 쟁점이 되었던 이상, 그런 책략은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었음이 입증되었다. 동맹(Alliance: 1983년과 1987년 영국선거에서 자유당과 사회민주당이 결성한 일종의 선거연합 - 옮김)은 反동성애 물결을 타고 승리를 휩쓸었다. 그 후에 벌어진 총선에서는 사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이번 지방 후보는 확실한 이성애자였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선거전단에는 후보 개인의 사진만이 아니라 아내와 아이를 꼭 껴안은 사진까지 들어 있었다. 그가 얼마라 '정상적인지' 보여주려고 말이다.

1986년 노동당 대회에서 동성애자 권리에 관하여 좌파가 거두었던 승리에도 오점은 남아 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를 숨기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BBC 방송이 대회 생중계를 딱 한 번 중단한, 동성애자 권리를 토의하는 시간 15분을 '놀이학교'라는 프로그램의 시간대와 일치하도록 용의주도하게 계획했던 것이다!

대부분의 노동당 지방의회에서 공식적인 고용차별을 폐지하고, 남녀 동성애자 분과위원회를 만들었으며, 지방의 동성애자 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동성애자 해방을 위해 한 일은 그게 전부였다. 이런 모든 일은 환영할만한 일이긴 했다. 그러나 지방세 지출상한선을 저지하는 데 실패한 탓으로 그들에게는 자금이 부족했다. 때문에 실제로 남녀 동성애자들에게는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 '공정적인 이미지' 정책을 통하여 유일하게 이 문제에 좀더 깊이 다가가려 했던 것은 해리지 지방의회였다.

이 정책은 지방의회의 모든 선전 통로를 이용하여 남녀

동성애자들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조성하려던 것이었다. 특히 학교에서 이 정책을 활용하여 오직 이성애만이 '정상적'이라는 관념을 되받아 칠 계획이었다. '긍정적인 이미지'는 결국 공식적인 의회정책이 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노동당의 분파에 의해 채택되어 1986년 지방 선거의 쟁점이 되었다.

지방의 보수당원들은 당장에 우익의 반발을 충동질했다. 부모 행동단체가 설립되었다. 이들은 가두에 나서서 '변태성욕자들'에 반대하고 '품위 있는 가족의 가치'를 옹호하는 지지세력을 규합했다. 풍상가가 아니고서야 그 정책에 반대가 전혀 없으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런 우익 광신자들과 싸울 전술이 노동당에게 없었다는 것이 비극이었다. 반격에 맞서려는 운동이 시작되긴 했지만, 주로 노동당 외부의 활동가들에 의존한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긍정적 이미지' 정책이 지방의회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되게 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삼았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지방의회를 '난처하게 할지 모를 일은 일체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후퇴하기 시작하면서 지방의회에 맞설 수가 없었다.

노동당 해런지 지구당은 공식적으로는 이 정책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 그저 그대로 내버려두기로 결정했을 따름이었다. 동성애자 권리가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리라는 게 점점 더 분명해짐에 따라, 노동당 최고위원들까지도 그 문제에서 손 뗄 궁리만 하게 되었다.

1986년 후반에 결정적인 배신의 순간이 다가왔다. 반발은 흑인 사회로까지 확대되었다. 그 결과 '동성애는 흑인 가족의 기초를 위협하려는 백인들의 계략'이라고 단언하는 '흑인 부모 행동단체'가 등장하였다. 1986년 12월에는 이 단체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교육위원회 - '긍정적인 이미지' 정책을 후원했던 바로 그 단체다! - 의 인종관계 수석고문으로 임명되었다.

1987년 총선의 전초전에서 보수당과 동맹은 동성애자 권리 문제를 이용해 노동당을 공격하였다. 이것은 '정신 나간 좌익'에 대한 반대 운동의 일부였다. 그들이 공격하면 할수록 노동당은 점점 더 후퇴했고, 이러한 후퇴는 1987년 2월 그린위치 보궐선거 직후의 패주로 이어졌다.

동맹의 뜻밖의 승리에 자극을 받은 키녹의 공보관 패트리샤 헤윌은 런던 하원에 다음가 같은 편지를 보냈다. "연금 수령자들 가운데 남자 동성애자와 여자 동성애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노동당의 누군가가 이 편지를

즉시 루퍼트 머독의 『선』(Sun)지에 누설했고, 『선』지는 그것을 이용하여 동성애자 권리를 맹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했다.

오래 전부터 동성애자의 권리에 대한 지지를 포기할 수 없을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노동당은 당장 이 운동에 들러붙었다. 헤윌이 우익 광신자였던 것은 아니다. 그녀는 1970년대에는 전국시민자유 회의[NCCL: National Council for Civil Liberties: 1989년부터 자유(Liberty)라는 이름으로 개칭한 시민운동단체 - 옮긴이]의 서기로 있으면서 NCCL이 동성애자 차별 정책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그녀는 단지 노동당이 벗어날 수 없는 선거 정치의 논리를 유독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동성애자 권리는 표를 끌어모을 수 없는 문제니까 때버리는 게 당연했던 것이다.

노동당 좌파는 거의 대부분 헤윌의 편지에 이의를 달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그들도 패주에 동참했다. 동성애자 권리를 가장 충실하게 지지했던 노동당 런던 지구당도 곧이어 그 문제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들이 모두 우익을 입 다물게 만들어 버리면 반격도 사라질 거라고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이민규제의 역사를 보면, 그런 광신자들에게 양보하면 할수록 그들의 식욕만 돋우어 줄 뿐임을 알 수 있다. 점점 더 우익화되는 추세 속에서 노동당이 투쟁을 거부한 것은 필연적으로 우익이 더 열을 내어 공격하게끔 만들었다. 공격이 사나워질수록 노동당은 그만큼 더 뒤로 후퇴했다. 제28조가 제출되었을 때, 노동당 지도부가 처음 보인 반응은 그것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동성애자 권리에 관한 노동당 대회의 정책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비난에 대해 노동당의 어떤 고위 간부는 간단히 답변했다. "그때부터 계속 선거에서 졌잖아 요"

명망 있는 몇몇 노동당 좌파들 - 크리스 스미스, 켄 리빙스턴, 테니스 스키너 같은 사람들 - 은 그런 후퇴에 동참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노동당 지도부에 의해 사실상 고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노동당의 최근 행정을 보면, 그들이 동성애자 해방을 위해 진지하게 싸우는 것은 고사하고 기존의 권리를 방어하리라는 것조차 믿을 수 없게 된다. 그들은 위로부터 체제를 개혁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동성애자 해방처럼 인기 없는 쟁점은 언제라도 때버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나아갈 길

동성애자 억압과 그 밖의 모든 사회적 억압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사회주의, 즉 노동계급이 권력을 획득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책 전체에 녹아흐르는 주제이다.

동성애자 억압은 자본주의 구조가 확립되고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정착되었다. 문제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머리 속에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다. 그보다는 그러한 관념들이 사회의 조직방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런 관념들의 물질적 토대가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자본주의에서 가족은 매우 중요하며, 동성애자들은 그런 가족을 위협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 억압이 자본주의의 불가피한 특징인 것이다.

동성애자 억압에 맞선 투쟁의 역사는 사회주의 및 계급 투쟁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초기 마르크스주의 운동에서는 동성애자 해방 투쟁을 사회주의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바라보았다. 좌익이 패배를 거듭하면서 동성애자들의 권리도 부정당했다. 이것은 남녀 동성애자들이 더 모진 수난을 겪게 될 것임을 알리는 전조였다.

억압받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만으로 해방을 성취할 수는 없다. 계급적 분열 -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는 분열 - 이 동성애자 해방운동의 역사와 실천에 두루 나타나고 있다. 동성애자 해방은 계급 쟁점이다. 노동계급 출신의 남녀 동성애자들이 가장 억압당하면서도 가장 세상에 드러나 있지 못하다. 그들은 1960-70년대에 획득한 성과와 개혁에서도 가장 배제되어 있다. 동성애자 해방운동에서 가장 급진적이었던 GLF조차도 그 문제를 바르게 판단하거나 극복하지 못했다. 동성애자들의 사회를 포함하여 전체 사회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분리는 계급에 바탕을 두고 있다.

남녀 동성애자들이 노동계급과 사회주의 투쟁을 해방에 이르는 길로 바라보기란 대체로 어려운 일이다. 현재 가장 동성애를 혐오하고 동성애자들을 제일 핍박할 것 같은 동성애 반대 계층에게 기대를 걸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기에는 노동계급 내부의 분열 - 동성애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간의 분열, 흑인과 백인간의 분열,

남성과 여성간의 분열 - 이 절대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자 투쟁 하나하나가 모여 그런 분열을 잘게 으스러뜨린다. 계급투쟁이 특히 격렬해질 때면 수세기 동안 쌓여 온 편견도 부술 수 있다. 투쟁이 사회의 온갖 '정상적인' 분열을 가로질러 노동자들을 단결시키기 때문이다.

혁명 전 러시아에서는 철저하게 반동적인 러시아 정교회와 수세기에 걸친 후진성의 무게 때문에 반유대주의가 극에 달했다. 유대인들이 특정한 지위를 차지하거나 땅을 소유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었다. 유대인 마을은 습격을 받고 학살당하기 일쑤였다. 유럽 전체를 통틀어 러시아만큼 그렇게 맹목적인 편견이 깊은 지역은 없었다. 그런데도 1905년 혁명과 1917년 혁명 중에 러시아 노동자들이 투쟁 속에서 건설한 노동자 평의회는 유대인인 트로츠키를 지도자로 선출했다. 1917년 후반에는 볼셰비키가 평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했다. 그 중에는 유대인으로 알려진 뛰어난 볼셰비키가 여럿 있었다.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노동자들은 수세기에 걸친 편견을 극복했던 것이다.

더 최근의 예로는 1984-85년에 있었던 영국 탄광 노동자들의 거대한 파업을 들 수 있다. 남녀 동성애자 후원 단체가 조직되어 탄광 노동자 대표단이 파견되기에 이르렀다. 탄갱지부 깃발을 들고 한 무리의 사람들을 거느린 이 대표단이 1985년 동성애자의 자긍심 회복 시위의 선두에 섰다. 성 문제에 관한 보수적인 전통 때문에, 노동계급 가운데 이전에는 동등하게 행동하기 어려웠던 부문도 여기에 참여했다. 탄광 노동자들은 전원 남성으로만 구성된 노동인력이다. 여성들은 탄갱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많은 노동자들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대도시나 동성연애의 영향력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마을에 거주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파업을 통하여 의식의 변화를 경험했다. 일부 탄광 노동자들은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지지하게 되었고, 많은 탄광 노동자들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떳떳하게 내놓고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자들이 패배한 방어적인 파업조차도 투쟁의 경험이 어떻게 반동적인 사상을 이겨낼 수 있는지 - 투쟁이 어떻게 노동자들을 단결시키는지 - 보여주었다.

물론 변화는 자동적인 게 아니다. 투쟁은 그저 사상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만들어 낼 따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을 조직하고 다른 노동자들과 논쟁하여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 노동자들과 동성애자 해방에 대해 토론하고, 남녀 동성애자들과 사회주의를 토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쟁을 통한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으로서 사회주의 사상에 바탕을 두는 혁명정당이 필요하다.

우리는 극도로 모순된 세상에 살고 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수백만이 굶어죽어 가고 있는데, 유럽경제공동체(EEC)는 수백만 달러를 들여가며 식량을 비축하고, 영국 정부는 농부들에게 돈을 지불해 가며 식량생산을 막고 있다. 한편에서는 수십만의 건축 노동자들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1940년의 전시공습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런던 거리에서 아무렇게나 대충 밤을 보낸다. 자본주의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체제를 만들어 낸다. 이 체제는 모든 사람들이 부와 번영을 누리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만큼 뛰어난 과학기술과 발명품들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기술과 자원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이윤을 창출하는 데로 돌려질 뿐이다.

자본주의는 분할 통치를 위해 분열과 증오를 조장하는데 바탕을 두고 있는 사회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체제는 자본주의 자체의 무덤을 팔 수 있는 존재이자 새로운 사회의 창설자인 노동계급을 만들어 낸다. 노동계급에게는 모든 억압을 박살내고 착취를 종식시킬 힘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노동계급은 사회의 낡은 제도를 파괴하고, 직접 사회를 관리할 수 있는 노동계급 자신의 민주적인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언제라도 대표를 소환할 수 있는 노동자 평의회와 사회의 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진정한 권력을 갖추어야 한다. 지금은 이런 임무가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전망처럼 생각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투쟁이 최고로 무르익은 시기에는 언제나 그런 노동자 평의회가 건설되었다. 최근 15년만 보더라도 1973년 칠레에서, 1975년 포르투갈에서, 1980-81년 폴란드에서 그런 선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런 투쟁들은 누가 지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체제 자체의 본성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세계적인 위기가 심화될수록 그런 격변은 훨씬 더 빈번해질 것이다.

현재 남녀 동성애자들은 대중매체가 불러일으킨 광포한 탄압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도 물렁한 좌익과 노동당

지도부는 거기서 꿈무늬 떼기에 급급하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회주의자들이 동성애자 해방운동을 편들고 방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의 필요함을 주장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 사회가 되어야 비로소 동성애자 해방 사상이 현실이 되고 '이성애'나 '동성애'니 하는 인위적인 구분이 사라질 수 있다.

사회주의는 단지 모든 착취와 억압을 종식시키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애를 일그러뜨리고 파괴하는 모든 편견과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도 뜻한다.

MEMO

MEMO

MEMO

MEMO

MEMO